



資料 : UNRCPD

나가사키 국제회의[Youth 비핵특사, 핵무기없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사키 IDN = 아사기리 카즈히로】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2013년에 창설한 비핵특사 경험자가 모이는 [제 2회 Youth 비핵특사 포럼](본회의장; 나가사키대학 의학부)이 열려, 비핵 Youth 특사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핵무기는 막대한 경비가 드는 병기임과 동시에 그존재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지구환경,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존속 그자체가 위협을받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번의 비핵 Youth 특사들은 71년전의 히로시마와 함께 원폭참화에 위문을한 나가사키에 모여 핵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행동실천의 긴박한 필요성을 호소해나가도록 결의함과 함께 그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제언 (「젊은이 들에의한 핵무기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성명과 제언」) 을 발표했다.

Youth 비핵특사들은 포럼에서 발표한 제언중에 「우리들은 인간과 도시, 자연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인류와는 평화적인 공존이 불가능 하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의 후유증에 의한 육체적인 고통과 차별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온 피폭자들은 핵무기보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는 「일본은 유일한 전쟁의 피폭국가로써 『핵의 우산』으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대하여 핵무기의 공포감과 비인도성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한,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구속력이있는 조약의 교섭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행해야 할것입니다。」라고 호소하였다.



第26回国連軍縮會議  
資料 : MOFA

「제 2 회 Youth 비핵특사 포럼」은 일본 외무성이 유엔과 함께 공동개최한

「핵무기없는 세계로...나가사키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제 26 회 유엔군축회의 (12 월 12 일,13 일)의 식전행사로써 일본및 해외의 Youth 비핵특사 경험자 14 명의 출석과 함께 12 월 11 일 개최되었다.

Youth 비핵특사들은 또한,이성명속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정세는 지금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히로시마에서 G7 외무상 회의가 개최 되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인상깊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기본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관하여 교섭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하였다.

키시다 외무장관은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핵무기에 의한 참화의 실상을 국제사회와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 「Youth 비핵특사」 제도를 2013 년 4 월에 발족하였다. 지금까지 174 명이 「Youth 비핵특사」로써



Kazutoshi Aikawa, Director General for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Science Department, MOFA  
資料 : INPS

국내외에서 군축과 핵불확산등에 관하여 활동을 하여왔다.2016 년 3 월 일본정부는 제 1 회 Youth 비핵특사 포럼(Youth 비핵특사 OB/OG 히로시마 포럼)을 그다음달에 개최하는 G7 히로시마 외상 회의의 식전행사로써 개최하여 Youth 특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경험과 의견들을 공유함과 동시에 외상 회의에 대하여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유엔군축회의는 1989 년이래 일본정부와 유엔 아시아 태평양 평화군축 센터 (UNRCPD,방콕)를 함께 개최하여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거의매년 열리고있고 세계각국의 군축과 불확산 전문가,외교관,매스컴 관계자들이 모여,군축과 불확산등에 관하여 폭넓은 토론을

갖고있다.

2015년 8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제 25 회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2015년 핵불확산조약(NPT) 운영 검토회의의 총괄과 금후의 전망, 핵무기의 비인도성 아시아에 있어서의 비핵지대의 의의와 핵군축, 불확산, 시민사회와 군축, 불확산 교육 등의 테마가 의제로 나와 핵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여 세계적인 움직임을 다시금 활성화 할수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Kim Won-soo, UN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ffairs

資料 : UN Photo

폐회후에 기자회견을한 외무성의 아이카와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은 「모든 관할 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이 대두되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응에 대한 어려움도 나타났습니다.」 (나가사키 국제회의는) 내년의 NPT 운영검토회의 준비위원회를 향하여 준비를하는데 아주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라고 총괄 하였다.

김원수 유엔군축담당 상급대표는 개회식의 인사에서 「금년은 처음으로 유엔총회의 결의가 채택되어 7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엔총회의 결의제 1 호는 인류의 존속 그자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대량파괴 무기를 폐기하기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7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목표는 지금까지도 실현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아니라 핵무기의 폐기를 향한 교섭자체가 벽에 부딪쳐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Tomihisa Taue, Mayor of Nagasaki City

資料 : IAEA

Youth 핵무기 특사들이 발표한 제언은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NPT 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을 포함 하여, 핵군축, 불확산,에 관한 언급을 충분히 할것」 더우기, 「핵군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NPT 의 집행기능의 개선과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구속력의 조약의 교섭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법적 태두리의 강화를해야 할것」 을 호소하였다.

이 제언은 또한 핵무기보유국에 관하여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전보장과 정치 경제성등의 관점 으로부터 재고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것」 그리고 「보유하고있는 핵무기의 수를 삭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NPT 상의 의무를 실행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NPT 비가입국에 대하여 「하루속히 비핵무기국으로써 NPT 에 가입할것」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자국의 핵무기의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핵무기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활동에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더우기 핵무기 보유국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핵무기의 근대화를 중지할것」 「불필요한 리스크와 위험성을 갖어오는 즉시발사 경계태세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제외하고 또한 오발방지를 철저히 할것」 더우기 「핵무기의 관리에는 경험풍부한 인원을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를하여 무기로 전용가능한 물질이 테러집단등 그것을 빼돌려 손에 넣으려하는 집단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핵우산속에있는 나라를 포함하여 비핵무기국가에 대하여는 「비핵무기국가로써유지하여 『핵무기가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리더쉽을 발휘할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특히, 「핵우산」에 기대고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그유효성과 신뢰성,리스크등을 포함하여 현행의 정책을 중지하고 비핵무기지대의 설치를 포함하여 핵무기에 의존하지않는 안전보장의 근거를 구축할것」을 호소했다,

Youth 비핵특사들은 「비핵무기 국가들이 하나가되어 핵무기보유국의 핵군축의



Toshiki Fujimori, Deputy Secretary General, Nihon Hidankyo (left) and Ambassador Boukadoum, Chair of the First Committee. 資料 : UNODA

노력을 가속하게끔 도와주고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책정하는 등으로 핵무기없는 세계의 실행을 향한 실천활동을 실행하여 그실행을 핵무기 보유국도 포함하여 ,국제사회 전체에서 실행하게할것」 이라고 호소했다.

나가사키의 피폭때에 양친을 잃은 타가와씨는(83) 포럼종료후 「우리들이 피폭의 경험을 전할수있는 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젊은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감동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기대를 겁니다.」 라고 말했다

피폭자들의 평균연령은 80 을 넘고있습니다.나가사키시의 타가미 토미히사시장은 이점을 염두에두고 「피폭자에 의존하는 일이없이 반핵 메시지를 발신하여가는 방법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후에 살아 남아온 피폭자들이 「후세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지옥을 체험하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동안 어찌하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싶다.」 라는 마음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으로의 지지를 호소하는 「피폭자 국제서명 캠페인」 을 개시하였다

동 캠페인은(2016년 8월에 본격시동) 핵무기금지조약이 체결 될때까지 국제서명 활동을 계속하여 갈것을 계획하고있다. 8월과 9월에 모였던 첫해에 서명 (총계564,240서명)은 10월6일 유엔본부의 (제1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되었다. (10월1일 이후에 모여진 서명은2017년 9월말을 기한으로 2017년도분 으로하여 집계된다.) (12.24.2016) INPS Japan/ IDN-InDepth News



TOWARD A NUCLEAR FREE WORLD

LOMBOD V MICTEVS EBEE NOBITO

